

# 철학의 이해

## 제1강 서론:철학이란 무엇인가?

### 1. 일상과 철학

철학적 태도와 방법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우연과 짐작과 상상이 아닌, 보편과 객관을 추구하는 합리적 숙고와 철저하고도 냉철한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철학과 개별과학

인간은 본능 이외에 원리적인 생각과 판단, 즉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제반 문제상황에 대처한다.

지식 또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성적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항상 문제상황에 던져져 있는 인간에게는 지식 또는 지혜에 대한 사랑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상 근원적이고도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y)'이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된 철학의 어원적 정의가 그대로 보존되는 한, 철학 역시 인간에게 근원적이고도 필연적인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특히 심리학,물리학,생물학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괄목할 만한 개별과학적 성과들은 주로 인간과 우주에 관한 형이상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던 지식체계 내지 세계관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의 위상이 유지되어 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비록 개별과학적 노력이 모두 인간의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지혜에 대한 사라이자 이성적 작업이라할지라도, 그 방법이나 전제,목적,결과들이 인간 삶의 보존을 위한 지혜와 지식으로 조화롭게 귀결되지 않는 다는데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개별과학들 간의 갈등 내지 차이는 인간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 시키게 되고, 그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별과학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분석 그리고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인 종합을 동시에 요구하게 된다.

요컨대 근본적인 분석과 비판,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의 획득은 개별과학과 관련하여 철학적 탐문의 근원적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이자 목표인 것이다.

### 3. 철학의 위상

오늘날 분화된 개별과학적 학문세계 속에서 철학이 자리하는 위치는 바로 그와 같은 총체적이고도 근원적인 관점에 대한 불가피한 요구 위에 서 있다.

실제로 철학사를 살펴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철학은 학문세계 속에서 개별적인 문제영역 전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개별적인 분야가 다루고 있지 않은 고유하고도 독립적인 문제영역을 탐문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4. 철학의 문제영역

요컨대 철학의 연구대상이 위에서와 같이 대상 일반, 방법 일반, 목적 일반으로 나누어 진다 할 때, 철학의 연구영역 또한 그 연구 대상에 따라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철학의 주요 분과로서 일컬어지고 있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은 바로 그와 같은 철학의 연구영역상 구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4-1. 존재론(존재의 근원과 내적 연관에 대한 성찰)

존재론(ontology)은 개별과학이 다루는 대상을 특정 대상의 차원이 아니라 대상 일반의 차원에서 비판적이고도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철학의 연구영역이다.

우선, 존재론은 대상 모두가 어떤 근거에서건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두를 존재자라 칭하고 그 존재자에 관한 근원적인 탐문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존재론이 다루는 존재자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건 물질적 시공속에서건 이름 붙일 수 있는 일체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존재자 일체를 철학은 '세계'라 칭한다.

곧 존재론은 바로 그 세계에 관한 근원적인 고찰이다.

세계를 총체적이고도 근원적으로 고찰한다 함은 기본적으로 개별과학적 탐구대상 일반에 대한 근원적 고찰을 기본 과제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존재자의 존재 근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이해에 다가서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분할되어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연관성 전체가 유기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존재론적 탐문은 종종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에서 존재자들의 존재에 관한 주체적인 해석을 통해 이른바 존재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통일적인 자기 이해 및 태도종립 즉 철학적 세계관의 형성으로 나아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존재 세계의 통일적 이해의 기초로서 초경험적, 피안적 존재 내지 원리를 상점함으로써 이른바 형이상학(metaphysics)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형이상학은 존재론적 탐문의 특수한 양태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존재론적 탐문이 철학의 탐구영역의 하나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그것은 개별과학적 탐구대상의 존재 근거, 실재성 여부 등의 문제를 존재 일반의 관점에 의거하여 헤아려 줌으로써 개별과학이 학문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 4-2. 인식론(진리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성찰)

개별과학은 특정의 대상을 특정의 인식방식으로 탐문하되 진리인식을 목표로 한다.

철학은 개별과학의 탐구방식 일반, 지식 일반에 관한 반성적 탐문의 과제로서 진리와 인식의 의미, 범위, 기준, 조건 등을 문제 삼는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의 연구영역을 인식론(epistemology)이라 부른다.

어느 개별과학이건 그 나름대로의 탐구 대상을 갖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진리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리를 그 구체적인 개별과학차원에서가 아니라 진리인식 일반의 차원에서 진리인식의 기준과 조건과 규범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따져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근대 인식론은 재판정에서 사형의 위기에 몰린 갈릴레오 갈리레이의 인식론의 인식방법이 오히려 인간적 삶을 보존하는 진리인식임을 확인해 주었고, 현대 인식론의 불확정성 원리는 자연과학적 진리의 본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확률적인 것임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 4-3. 가치론(삶의 의미와 현실에 대한 성찰)

개별과학자들은 개별과학 나름대로 각각 인간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학문적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과학자들은 자신들의 탐구영역의 개별가치에 주목할 뿐 가치 자체 또는 가치 일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철학은 특수한 가치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가치 일반에 관한 문제들 또한 탐문한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의 탐구 영역을 가치론(axiology)이라고 부른다.

존재론,인식론이 철학이라는 꽃나무의 뿌리와 줄기로 비유될 수 있다면 가치론은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론은 곧 인간의 활동이 지향하는 일체의 모든 가치들에 관한 총체적이고도 반성적인 고찰인 것이다.

#### 4-4. 논리학(사고의 형식적 규칙에 대한 성찰)

존재론,인식론,가치론 이외에 철학의 주요 분과로서 우리는 논리학(logics)을 포함시킬 수 있다.

철학적 작업이 보편과 객관을 추구하는 철저한 이성적 작업인 한, 이성적 사고의 내적 원리 및 규범을 탐문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 5. 철학과 종교

종교적 대응방식과 비교하여 철학적 대응이 갖는 상대적 제한성 내지 미완결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적 사실은 냉철한 이성과 보편타당한 방식에 기초한 철학적 대응이 삶의 문제를 헤쳐 나가는 지성사의 불가결하고도 가장 견고한 중심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준다.

철학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인간의 지적 대응에 있어 이성의 역할에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종교는 신앙을 통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지만, 철학은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성의 눈으로 인간의 문제상황을 구성하는 제반 사물과 사태를 냉철하게 직시하는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철학은 학문의 차원에서건 삶의 지혜의 차원에서건 확실성을 향한 비약이라기 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줄기찬 대결이자 끝없이 묻고 되묻는 반성적 비판 그리고 형성의 작업인 것이다.

### 6. 철학의 가치

철학은 지식이 무지보다 우월하다는 것, 자각함이 몽매함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는 원칙을 받아들인다.

철학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거나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된다.

특정 관점을 맹목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가정과 방법, 비판적인 구분 기준 또는 준거를 끈질기고 조직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철학의 매력은 철학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구할 수 있다는데 있다.

철학은 사고, 감정, 행위를 의미있게 종합, 통일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와 균형감각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철학의 가치는 곧 인간의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제반 지적 대응들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이성적인 비판과 반성에서 주어진다.

소크라테스 " 자기성찰이 없는 삶은 사람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 7. 철학의 여러 가지 정의

1. 플라톤
2. 에피쿠로스
3. 키케로
4. 칸트
5. 헤겔
6. 쇼펜하우어
7. 니체
8. 마르크스
9. 후설
10. 지멜
11. 후크
12. 야스퍼스
13. 쉘리크
14. 레셀
15. 비트겐슈타인

## 제1부 인간과 욕망

### 제2강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인간다움에 대한 성찰

#### 1. 사람아, 사람아

자기를 객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인간은 동물이긴 한데 동물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발동된 것이기 때문이다.

#### 2.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가? 욕망하는 존재인가?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본다.

철학은 이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 대체로 철학자들은 이성적인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보는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 2-1.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 1) 플라톤의 인간관

플라톤은 '크라티로스'에서 인간을 '자기가 본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자'로 설명했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이성(이성)은 사물의 참된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억측은 감각에 속하는 인식이고, 지식은 참된 본성을 파악하는 인식이다. 참된 세계를 '이데아계'라고 칭하면서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주장했다. 플라톤에게 인간다운 인간이란 감각에 속하지 않는 인간이다.

인간은 몸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철학의 오랜 숙제이기도 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으로 보면서 마음을 몸보다 우위에 두었다. 현대로 오면서 몸이 마음보다 먼저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1'에서 육체는 인간이 도구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인간일 수는 없다면서, 인간의 진정한 주체는 영혼이며 영혼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영혼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현실의 인간들이 부나 쾌락을 좇음으로써 육체만 돌보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파악된다.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적 설명이다. 플라톤이 살았던 시기는 전쟁으로 모든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즉물적 만족에만 몰두하고 있던 때라서 플라톤은 즉물적 만족에 주목하기 쉬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대화편 '파이돈'에 나온다.

플라톤이 보기에는 육체는 영혼의 진리추구를 방해한다. 참된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잘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를 얻어야 한다.

두 마리 못된 말은 욕망과 기개를, 말을 통제하는 마부는 이성을 비유한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내면의 상태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플라톤의 화두는 조화이다. 인간 내면의 평화는 욕망, 기개,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국가들 역시 계급들 사이의 불화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욕망이라는 영혼의 부분이 잘 발달한 생산자 계급, 기개라는 영혼의 부분이 잘 발달한 군인 계급, 이성이라는 영혼의 부분이 잘 발달한 철학자들이 함께 사는 나라에서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국가 안정될 수 있다.

국가는 조화를 추구하고 불화를 제거하여 정의로운 행동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플라톤이 철인 통치를 주장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통치자들이어야 사심없이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부를 탐한다든지 군인이나

생산자가 권력을 탐하면 질서는 무너지고 부정이 횡행하게 된다. 물질을 좋아하고 이익을 탐하는 생산자 계급은 절제의 덕을, 명예를 추구하고 이기기 좋아하는 수호자 계급은 용기의 덕을,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계급은 지혜의 덕을 갖출 때, 국가의 건강함이 유지되어 나라도 번성하고 국가의 구성원도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상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다.

플라톤은 욕망,기개,이성의 인간 영혼이 이성의 통제에 의해 잘 조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한 철학자이다.

제3강 도덕인가,욕망인가?-더불어 사는 삶,동양의 지혜

제2부 사랑과 행복

제3부 문화와 예술

제4부 사회와 현실

제5부 문명과 자연

제6부 존재와 진리